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	과 장 양재석	042-481-8254
	산업재산창출전략팀	사무관 박기석	042-481-8184
		2018년 1월 16일(화)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월 15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핵심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, 혁신성장 이끈다.

- 특허청, '18년 특허-연구개발 연계 전략(IP-R&D) 지원에 197억원 투입 -

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신기술·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&D 전략을 지원하는 「2018년 IP-R&D 전략지원」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「IP-R&D 전략지원」은 중소·중견기업이 지식재산(IP)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,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특허 대응, 공백기술 도출,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올해는 전년보다 11.3% 증가한 197.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-R&D 과제를 지원한다.

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,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.

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-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.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산*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혁신 비즈니스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.

* 비즈니스모델 특허,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 경험(UX·UI)에 관한 특허·디자인 등

제약·바이오 분야는, 신약 사업화의 필수요건인 '특허'와 '허가'를 함께 고려하여 R&D 전략을 세워 주는 특허-허가-R&D 연계전략 과제를 새로 지원한다. 기존에 기업들이 따로따로 진행하던 특허 확보와 허가 취득을 연계함으로써 허가 규격까지 반영한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R&D 소단계(과제 발굴·기획·수행·사업화)의 맞춤형 IP-R&D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제 유형도 작년 2개에서 5개 유형까지 늘린다.

먼저 '공동 IP-R&D'(지원기간 6개월)는 각 제조단계별 기업과 같이 상호협력 관계의 다수 기업이 참여하여 공통 애로기술의 특허 전략을 이끌어내고 유망 R&D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.

'신기술·신사업 전략형'(5개월)은 경쟁사 특허 분석 등 신제품·신사업 기획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특허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. 'R&D 수행 전략형'(3개월)과 '문제해결형'(2개월)은 특허분석을 통하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, '제품화 전략형'(3개월)은 핵심특허 보완과 주변 기술·제조기술 특허 확보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.

한편,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(소셜벤처* 등) 및 재창업 기업 전용 과제를 운영한다.

*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창업기업

소셜벤처의 보유 특허는 2건 내외로 일반 벤처(4.5건)에 비해 지재권 경쟁력이 낮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. IP-R&D로 취약계층 대상 적정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특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젠더 혁신*을 이용한 IP-R&D도 지원한다. 기업들이 성(性)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·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진단·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지재권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예를 들어, 남성뿐 아니라 여성 신체 데이터도 반영한 충돌 인체모형(dummy) 개발을 통해 차량 사고시 여성 부상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* 성(젠더) 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

지난 5년간('12~'16년) IP-R&D를 지원한 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·해외특허 비율이 2.3~3.4배, R&D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산 대비 6배에 달하고 있어, 올해도 IP-R&D가 고품질 특허 확보와 기업 성장동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IP-R&D 지원으로 전문인력·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”며, “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 사업 관리시스템(ippro.kista.re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상반기 지원 신청기한은 1월 19일까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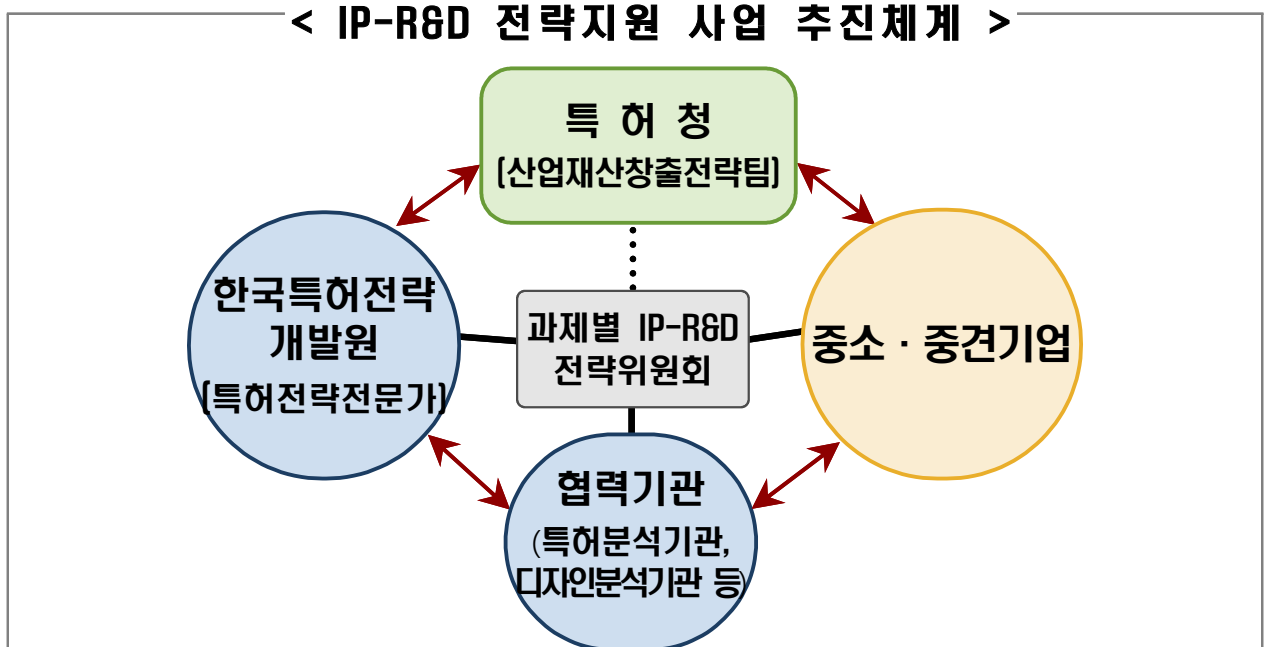
참고

IP-R&D 전략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강의 지재권 확보전략 수립 지원
- (지원 방식)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 등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 맞춤형 지재권 전략 수립 지원

□ 추진체계 및 지원 내용



- (1단계: 환경분석) 기업 니즈 및 현황과약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시장·경쟁사, 특허분쟁 현황, 국가정책 동향 등 종합적 환경 분석 실시
- (2단계: 특허분석) Tech Tree를 작성하여 특허분석프레임을 확정하고, 특허(논문)의 정량·정성분석으로 주요 특허를 선정한 후 핵심특허 도출
- (3단계: IP-R&D 전략수립) 도출된 핵심특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특허 대응전략, 신규 IP 창출전략, R&D 방향 제시 등 지원

